



오늘의 날씨 | 맑음 | 22℃/34℃

2018년 7월 20일 금요일 (음력 6월 20일)

기독일보

석간

www.christiandaily.co.kr

제 1095호



구독신청 02-722-8165



엄마의 외침!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계획 규탄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가운데, 평범한 두 아이의 어머니 건강과가족을위한 학부모연합 김윤혜 대표가 삭발식을 감행하며 “NAP 폐지”를 외쳤다.

노형구 기자

평범한 엄마, “가정 파괴된다”며 NAP 폐지 외쳐

더민주당사 앞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 기자회견, 건강과가족을위한학부모연합 김윤혜 대표 삭발 감행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계획(NAP) 규탄 기자회견이 19일 오전 11시 반부터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국가인권 정책계획에는 50가지 이상의 성(Gender)을 인정하는 성 평등 정책,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사람’으로 변경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헌법과 법률은 남녀 구분을 생물학적 성(sex)으로 명확히 구분하는 양성평등을 기반하고 있는데, 현재 법무부의 국가인 권정책기본계획(NAP)은 남녀 구분을 사회적으로 길들여진 성(gender)을 기준으로 삼는 성 평등을 담고 있다. 현재 뉴욕시 인권위원회는 성평등 정책 에 기반해 31가지 젠더를 승인 및 발표하 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젠더 호칭을 부르 지 않으면 125,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신청 사건에서 젠더를 ‘개인이 스스로 인 식하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의 귀속감 즉 정신적·사회적 요소들 역시 사람의 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건강과가족을위한학부모연합 김윤혜 대 표는 “국가인권정책계획은 젠다이데올로 기가 맞다는 것을 교육 사회제도를 통해 이념교육 시키려한다”며 “이로 인해 전통 적인 성 윤리로 세워진 가정의 질서와 가 치는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 녀는 “지난 14일 쿼어 축제에서 성기 모 양의 쿼기 등 각종 음란물을 이변에도 판매했다”며 “국가인권정책에 들어가는 성소수자니까 음란물건 판매를 허용하고 다수의 인권도 보장 못하면서, 왜 소수자 들의 인권만 챙기는 것인가?”라고 비판했 다.

또한 현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기 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안도 담겨있다. 현재 헌법에는 기 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상정하고 있다.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발의 했지만 5월 24일 부결된 헌법개정안에는 ‘국민’을 ‘모든 사람’으로 바꾸는 안도 포 함돼 있었다.

김윤혜 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 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

다’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인 헌법 제1조 2항은 ‘국민’이 곧 국가임을 나타낸다”며 “헌법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를 보장하여 자유민주주의를 보장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곧바로 그녀는 “헌법개정안이 무산되자 법무부는 국가인권정책을 통해 기본권 주 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려 한다” 고 비판했다. 이어 그녀는 “국민들의 기 본권을 제약하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 려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해야 가능한 데, 법률의 제정 없이 행정부 정책만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려 한다”며 “이것 은 헌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이고 직권남 용이다”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녀는 “이렇게 되면 이주민, 난민, 외국인 등도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 한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며 “현재 청와 대에 난민법 폐지로 71만 명이 청원을 했 다”고 전했다. 고려대법학전문대학원 장 형수 교수의 말을 인용한 그녀는 “일제강 점기 우리 국민이 주권과 자유와 영토를 빼앗겨 고통을 당했다”며 “1948년 제헌헌 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 자손의 자유

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고 전했다. 이어 그녀는 “왜냐면 대한민국 이 일제로부터 해방하면서 다시는 주권 과 영토가 외국에 의해서 침범되는 역사 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헌법 은 국가 주권을 국민으로 못 박아 다시 는 주권과 자유와 영토를 외국에게 빼앗 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녀는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이민자에게 특혜를 주는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말했는데, 왜 굳이 유 럽에서 실패한 정책을 수용하는 것인가? ”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그녀는 “2030 년 영국 인구의 15%가 무슬림이 된다는 통계 수치는 이를 보여 준다”며 “현재 다 문화 정책을 시행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무슬림 난민으로 인해 자국민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 아이의 어머니 김윤혜 대표는 법무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반대의 견을 표명하기 위해 삭발식을 진행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규탄 기자회견에는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전국교수연 합(동반교연)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289개단체인합), 전국학 부도시민단체인합,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 모연합, 자체대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참 여했다.

노형구 기자

北, 대북 제재 등 영향 “2017년 최악 경제성장”

대북 제재 강화 등의 영향으로 북한이 지난해 20년 만에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북 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보다 3.5%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2017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에 비해 3.5% 감소했으며 1997년 76.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북한의 경제 성장 추이를 보면 2010년 -0.5%로 ‘마이너스’ 성장한 이후 2011~

2014년 1% 안팎 성장세를 유지했다.

북한 성장률은 2015년에 다시 -1.1%로 떨어졌다가 2016년 3.9%로 반등해 1999 년(6.1%) 이래 최고를 기록했으나 1년 만 에 다시 떨어졌다.

산업별로 보면 농업·임업은 농산물과 수산물 생산이 줄어 전년대비 1.3% 감소 했으며, 광업은 석탄 생산이 크게 줄어 11.0% 줄었다.

제조업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6.9% 감소한 가운데 경공업은 식료품 등이 늘 어 0.1% 증가했다.

중화학공업은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등을 중심으로 10.4% 감소했다.

전기가스수도업의 경우 화력발전은 늘 어났으나 수력발전이 더 큰폭으로 줄어들 면서 2.9%

줄었고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 심으로 4.4% 줄었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정부서비스(관리행 정 등)가 늘어 0.5% 성장했다.

2017년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 GNI)은 36조 6억원으로 한국의 2.1% 수준으 로 나타났다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146만 4천원으로 한국의 4.4% 수준으로 집계됐다.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55억 5천만 달 러로 전년에 비해 15% 감소했다.

수출은 17억 7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37.2% 감소한 반면에 수입은 37억8천만 달러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2017년 남북교역 규모는 전년대비 99.7% 감소한 90만달러를 기록했다지만, 2016년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 이후 반출입 실적이 거의 없었다.

서울평양뉴스

한장총 미국서부지역 연합회 창립 “장로교 정체성 확립·위상 높이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미국서부 지역 연합회가 창립대 초대 대표회장

이정남 목사가 취임했다. 지난 7월 16일 오전 10시 LA 한인타운 가든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창립총회에서 회원들은 만장일치 박수로 대표회장

이정남 목사, 상임회장에 김병도, 최학량 목사, 운영회장에 김정호, 민종기, 박효우, 신승훈, 양수철, 정해진 목사 등을 추대 했다. 공동회장은 김영규, 남상국, 서문옥, 성종정, 엘리자 김, 이순천, 이정현, 조은 철, 전재학, 최정남, 홍성관, 하태신 목사 이며 부회장은 양병삼, 홍성표 목사, 총 무는 이준우 목사, 부총무는 폴 리 목사, 서기는 김병호 목사, 부서기는 김성곤 목 사, 회록서기는 최경일 목사, 회계는 이철 장로, 감사는 고재원, 김호, 추창효 목사, 사무총장은 김철수 목사가 맡게 됐다.

한장총은 1981년 예장 통합, 합동, 고 신, 기장, 대신 등 한국의 대표적인 장로 교단들이 주축이 되어 창립했으며 현재 20개 교단이 참여하는 장로교단 연합체 다. 대표회장 유중현 목사가 취임한 이후, 미국 4개 지역에 지부 형식의 지역 연합 회를 창립하기로 공약했고 이날 첫 지부 인 미국서부지역 연합회가 창립된 것이다. 창립총회에서 유 목사는 “일각에서는 우 리가 미국까지 와서 파당 싸움을 하려나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미국에서도 장로교단의 정체성을 확립 하고 위상을 높이며 이단을 경계하기 위 해 지부의 필요성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 다. 그는 이날 창립총회 후 곧장 뉴욕에 서 미국동부지역 연합회도 창립할 예정이 라 밝혔다.

미국서부지역 연합회 대표회장 이정남 목사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세속 화와 혼합주의, 타종교, 이단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다음 세대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를 전해 그들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장총은 개인이 아닌 장로교단들의 연합체이므로 서부지역 연합회 역시 개인 이 아닌 교단이 가입하게 된다. 정관에는 “본 연합회는 한장총 회원교단 미주지회 장로교단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 다. 즉, 한장총에 이미 가입된 교단을 가 운데 미주에도 교단이 있는 경우 그 교 단들이 회원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장총에 가입되지 않은 미국 장로교단들 의 경우는 현재로서는 회원이 되지 않는 다.

이날 총회는 1부 예배, 2부 창립총회, 3 부 취임 축하 등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박효우 목사가 인도했으며 안문기 장로 가 기도.

홍성표 목사가 성경봉독하고 유중현 목사가 “의로운 사람(마1:18-2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동기 목사가 한장 총에 대해 연혁을 소개했으며 김병도 목 사가 축하하고 이준우 목사가 광고했다. 축도는 유중현 목사가 했다. 총회에서는 이정남 목사의 대표회장 추대 후 각종 안 건들이 의사천리로 진행됐으며 최학량 목 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취임축하 순서 는 김철수 목사의 사화로 시작됐으며 유 중현 목사가 이정남 목사에게 취임패 등 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30여 명 의 목회자가 참석했다.

LA=김준형 기자

北 “탈북 종업원 송환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 장애 조성”

북한 선전매체들이 지난 2016년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다 집단으로 탈북한 종업원들의 송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상봉에 장애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 는 이날 ‘강제역류되어 있는 우리 공민들 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 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매체는 “지난 10일 키타나 유엔 인 권특별보고관이 기자회견에서 일부 북한 여성종업원들을 직접 만나본데 의하면 그 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납치선에 오 게 됐다. 만약 이들이 납치된 것이 사 실이라면 범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 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성 공민들의 송환 문 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 른 북남 사이의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에 전반에도 장애 가 조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통일부가 북한 해외식당 여종업 원 집단탈북 사건과 관련해 “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입국했다”는 기존 입장 을 거듭 강조했다.

서울평양뉴스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을”

이승만 대통령 서거53주기, 선민네트워크 제6차 대국민 호소문

86민주화 세대가 중심이 되어 결성된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목사)가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53주기 를 맞이해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대통령

동상 건립을 청원하는 제6차 대국민호소 문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19일 낮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민네트워크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세월을 지내보니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를 앞서 보는 해안에 감동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히고,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어 모두가 평 등하게 사는 유토피아 건설하면서 인 류를 현혹했던 공산주의의 세계사적인 거 대한 흐름에 맞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이를 성

취해 낸 것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탁 월한 업적”이라며 “그 결과 우리민족 전 체의 공산화가 저지되었고 우리의 자유와 생명이 지켜졌다”고 했다.

선민네트워크는 “만일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결단이 없었더라면 아마 도 지금쯤 조국통일의 소원은 이루어졌 을지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

김씨 3부자의 초상화 아래서 우리의 자 유와 인권이 박탈당한 체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부르면서 폭압과 굶주림에 신음 하고 있었을 것”이라 말하고, “아무리 자식에게 못된 짓을 했던 아버 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었다 는 그 한 이유만으로도 예를 갖추는 것

이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효의 전통”이라며

“독재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 가 분명있습니다만 그 공과를 떠나 ‘대한 민국’의 건국의 공로를 기리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된 참된 도리가 아니”라 했다.▶관련성명4번

박용국 기자

한동대 ‘소외된 90%와 함께하는 창의융합설계 아카데미’ 성료

한동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센터장 윤환기 교수)는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 까지 교내에서 소외된 90%가 더 많은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창의융합설계 아카데미를 열었다.

올해로 개최 11주년을 맞은 이번 아카데미는 적정기술을 통해 과학기술의 시대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자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모여 소외된 사람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발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전국 13개 대학에서 모두 15팀이 참여했고 적정기술 적합성, 지속 및 보급 가능성, 기술적 우수성, 발표 및 팀워크를 평가해 수상팀을 선정했다.

시각 장애인과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원활하게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한 표정석(부산대), 노창호(아주대), 김은영(아주대), 유현아(한동대),

김지현(금오공대)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다.

금상은 산간 오지 마을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원격 감시할 방법을 설계한 김수연(아주대), 장수필(한국기술교육대), 김준섭(영남대), 조서연, 최미혜(한동대) 학생이 받았다. 알로(Allo) 겹칠 빗기기를 위한 공학 기술을 설계한 나성수(한남대), 이지현(홍익대), 한민재(아주대), 이정승(고려대) 학생이 은상을 차지했다.

동상은 지하수에 비위생적 영향을 없애는 친환경 화장실 개발한 정현우(금오공대), 정재혁(금오공대), 최재훈(금오공대), 김지호(금오공대) 학생이 받았다.

이 아카데미에는 학생들뿐 아니라 연구자 및 실무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튜터가 되어 아카데미 기간 학생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멘토링 및 평가를 해줄 뿐 아니라 다양한 강의를 제공했다.

한국로버트버쉬 조성철 기술위원은 ‘다오스 오지 닻통마을 태양광 및 소수



아카데미를 마치고 단체 기념촬영.

한동대 제공

력 하이브리드 발전 시스템'을 주제로 강의했다. 순문탁 박사(Joy Institute of Technology)는 ‘오픈 포그와 일곱 기둥’을 주제로, 한동대 이원섭 교수는 ‘인간 중심 설계’를 주제로 특강을 열었다.

윤환기 센터장은 “소외된 90%의 사람

들을 위해서 어떤 기술이 필요하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 실상과 문제를 알리는 것이 목적인 만큼 이러한 일들이 현지인들의 삶의 질을 높일 가능성이 되어 인류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홍은혜 기자

한국CBMC,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및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MOU

한국기독실업인회(중앙회장 이승율, 이하 한국CBMC)는 지난 16일 마포소재 CBMC 중앙사무국에서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및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와 ‘일자리창출 및 창업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식에는 한국CBMC 이승율 중앙회장,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김환일 부회장,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 이상은 부회장이 송재희 회장을 대신해 참석했다.

한국CBMC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국가 최우선 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며, 한국CBMC 회원 기업인으로 구성된 멘토단 운영 및 회원사 인턴십,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해 한국교회 미래이자 소망인 청년들에게 창업경험과 신앙체험을 전수할 계획이다.

지난 2월 한국CBMC 18대 중앙회장으

로 선임된 이승율 회장은 다음세대의 급격한 감소로 위기를 맞은 한국교회의 현상과 청년실업문제, 결혼·취업·출산 등 삶의 가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N포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창업선교의 가치를 들었다.

이 회장은 “창업선교라는 새로운 사역 플랫폼을 통해 다음세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쇠퇴하는 한국교회를 부흥시키는 초석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국CBMC는 새로운 가치 혁신과 함께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한국CBMC

한편 한국CBMC는 오는 8월 15-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45차 CBMC 한국대회에서 ‘청년초점집회’

를 열어 창업선교 사역의 지평을 넓히고, 차세대에 대한 사회 및 교계의 관심을 이끌어 낼 예정이다.

홍은혜 기자

이영자, 밀알복지재단에 장애아동 치료비 기부

개그우먼 이영자가 저소득 가정 장애아동들의 치료비로 써달라며 최근 매니저와 함께 출연한 광고의 모델료 전액을 밀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이영자의 기부는 지난 4월 방송된 MBC 장애인 날 특집방송 ‘봄날의 기적’ 출연이 계기가 됐다. 당시 MC를 맡은 이영자는 방송을 통해 소개된 장애아동들의 사연에 눈물을 흘리며 공감한 바 있다. 이영자는 대중들에게 받은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누기 위해 최근 매니저와 함께한 첫 광고 모델료 전액을 기부하기로 결심했다. 후원금은 밀알복지재단에 전달돼 치료나 수술이 시급한 저소득 장애아동 7명의 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밀알복지재단 정형석 상임대표는 “저소득가정 장애아동들은 꼭 받아야 하는 치

료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영자씨의 따뜻한 나눔은 의료비를 지원받게 된 장애아동들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1993년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목표로 설립된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아동의료비 지원사업을 비롯해 장애인 특수학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공동생활시설 등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다. 국내 45개 산하시설을 통해 장애인 뿐 아니라 노인과 아동,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외 18개국에서도 아동보육, 보건의료, 긴급구호 등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지난 4월 MBC 장애인의 날 특집 '봄날의 기적'에 출연중인 이영자.

밀알복지재단



인천 효성중앙교회 제공

한신대, 이승정 목사 장학금 전달식 개최

한신대학교(총장 연구홍)는 지난 7월 19일 오후 4시 오산캠퍼스 총장실에서 이승정 목사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금 전달식에는 이승정 목사가 500만원을 한신대 연구홍 총장에게 전달했다.

이승정 목사는 “아들이 한신대 사회복지학과에 재학 중 연구홍 총장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신학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다”며

“어려운 상황에서 받았던 은혜를 만드시길 기원하며, 장학금을 전달하게 되었으며, 아들이 향후 군목 예정으로 군선교의 마중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연구홍 총장은 “장학금을 받게 될 군목 후보생들에게 뜻을 전달하고, 한신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은식 기자



한신대

우정사업본부
KOREA POST

우체국 예금에서 우리 모두를 위한
미래의 꿈을 함께 하겠습니다.

똑똑한 금융
우체국으로 시작하자!

더 스마트해진
우체국 예금

“광화문 광장에 이승만 동상 건립을”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53 주기를 맞이하는 86 민주화세대 모임
선민네트워크 일동 대국민 호소문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중심에서 청춘을 보내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민했던 86 세대가 오늘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탄생되도록 기여한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서거 53 주기를 맞이하여 이승만 대통령 동상이 광화문광장에 건립되기를 국민여러분께 제 6 차 청원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민족이 일제의 사슬에서 해방된 감격스러운 광복절이며 1948년 8월 15일은 세계 속에 웅비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탄생한 기쁨의 날입니다. 또한 1875년 3월 26일은 ‘대한민국’을 건국한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탄생일이며 1965년 7월 19일은 90세의 나이로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망명지 하와이에서 쓸쓸이 세상을 떠난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서거일입니다. 올해는 이승만 대통령의 탄생 143주기이며 또한 서거 53주기를 맞는 해입니다. 과거 독재타도라는 함성으로 민주화의 열망으로 격동의 시절을 지내온 저희 86세대(80년대 학번, 60년대 생)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매우 부정적입니다. 특히 4.19의 정신을 배우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독재에 항거하는 학생들에게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아주 고약하고 나쁜 독재자였습니다. 더군다나 통일의 민족적 염원을 무시한 채 남한의 단독정부를 세움으로 분단의 역사를 고착화시킨 장본인이며 친일세력과 결탁하고 침략자 미제국주의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 땅에

민주화가 정착된 지 30년에 이르는 지금,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일에 흔들리지 않을 불혹의 나이를 지내면서 또한 부끄러웠고 절망스러웠던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으로 변모되었음을 목도하며 지나온 역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다시 재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세계가 놀라는 경이로운 발전을 해온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하기 위해 고전분투해온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을 회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중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탄생케 한 건국대통령의 공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월을 지나보니 이승만 대통령의 시대를 앞서 보는 해안에 감동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 농민이 주인이 되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유토피아 건설하자면서 인류를 현혹했던 공산주의의 세계사적인 거대한 흐름에 맞서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이를 성취해 낸 것이야말로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업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민족 전체의 공산화가 저지되었고 우리의 자유와 생명이 지켜졌습니다. 만일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의 해안과 결단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지금쯤 조국통일의 소원은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독재 감시 3부자의 초상화 아래서 우리의 자유와 인권이 박탈당한 채 ‘위대한 장군님 만세’를 부르면서 폭압과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민네트워크

아무리 자식에게 못된 짓을 했던 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그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얻었다는 그 한 이유만으로도 예를 갖추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효의 전통이었습니다. 건국 70년이 되는 ‘대한민국’ 역사를 살펴볼 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실든 좋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이상 오늘 날의 부강한 ‘대한민국’이 시작되도록 한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독재로 인한 이승만 대통령의 과오가 분명했습니다만 그 공과를 떠나 ‘대한민국’의 건국의 공로를 기리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된 참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G20 국가로 우뚝 서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을 방탄한 많은 외국인들이 묻습니다. “왜 대한민국 의 광장인 ‘광화문’광장에는 ‘조선’의 위인만 있고 ‘대한민국’의 위인은 없느냐?”, “왜 ‘대한민국’의 화폐에는 ‘조선’의 위인만 있고 ‘대한민국’의 위인은 없느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마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세계 여러 국가를 다녀보면 그 나라의 중심이 되는 국가적 광장에는 대부분 그 나라를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위인들이

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광장에는 ‘대한민국’ 건국의 인물들이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의 정신을 기려 ‘대한민국’의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그의 동상이 세워지기를 희망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의 친구들과 후배들은 저희의 주장에 대해 참으로 미련한 짓이며 심지어는 미친 짓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광화문에 건립하자고 용기를 내어 청원하는 것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광복 73 주년과 건국 70 주년이 되는 2018년, 순국선열에 감사하며 건국의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애국의 도리임을 간곡히 호소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더 간절히 청원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건국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을 ‘대한민국’의 광장 ‘광화문’ 광장에 건립합시다!

“공영방송, 동성애축제 홍보 방송이나”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지난 14일 서울 광장(서울시장 박원순)에서는 동성애자들의 행사인 소위 ‘퀴어 축제’가 열렸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방송들은 어떻게 보도하였나?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KBS공영노동조합에서는 지난 16일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KBS가 뉴스를 통해 보도한 것을 분석하여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지적인 것을 살펴보면,

첫째는 평일보다 뉴스 시간이 짧은 주말인데도 동성애 관련하여 두 개의 아이템으로 보도한 것은, 균형성 차원에서 지나치다고 평가하고 있다.

두 번째는 동성애자들과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는 대대적으로 하면서도, 그 반대자들이 벌인 집회는 간략하게 언급했다고 형평성을 거론한다.

또 성소수자의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던지는 사회적 혐오감이 크다는 것으로 리포터들 마쳤는데, 사회적 논란거리인 동성애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이를 미화하고, 퀴어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셈이 되었다고 질타한다.

이 성명서의 우려대로, 공영방송 KBS는 동성애 축제에 보도하는 모습에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으며, 국민들이 공영방송의 무용론(無用論)을 제기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국민들은 차라리 SNS(사회관계서비스망)와 현지에서 전하는 개별방송들이 더 사실적으로 보도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 다른 공영방송인 MBC는 어떤가? 이 방송도 두 개의 아이템으로 뉴스 방송을 했는데, 아예 동성애 축제 홍보방송에다가, 아이템 하나는 동성애자 부모 6명의 주장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채웠다.

반면에 상업방송인 SBS는 동성애 축제를 소개하면서도,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전달하려 노력하였다. 「전신(全身)을 다 보이게끔 다니는 것 좋지 않아요, 아이들이 보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

고요」 어느 학부모의 반대 의견을 인터뷰한 것이다. 그러면서 동성애 문제가 우리 사회의 논란거리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일반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동성애 옹호 언론 보도에 대하여 댓글을 단 것을 보면, ‘잘못된 것을 다르다고 항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나’ ‘동성애가 성소수자의 정당한 인권이라면, 남녀 간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은 장애인 자들이나’ ‘이게 무슨 00성욕자를 행사인지’ 등 매우 비판적인 댓글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러한 생각들은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여론조사 기관인 ‘공정’에서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24명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한 것에 의하면, ‘퀴어축제에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77.0%를 차지하였다. 서울 시민 10명 가운데 8명이 퀴어 축제는 건전한 축제가 되지 못함을 간파한 것이다.

현재 서울광장에서 벌어진 동성애 퀴어 축제는 그야말로 퇴폐와 음란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행사에서도 남녀의 성식기 모양을 한 물건들이 판매가 되었고, 일반인들이 그런 반라(半裸)의 차림을 하면, 곧바로 현행법에 저촉될 복장들과 행위들이 버젓이 서울 시민들의 광장에 등장했다.

그런데 이런 수준의 행사를 공영방송을 비롯한, 방송들이 국민들과 서울 시민들의 의식과 정서를 무시하고, 마치 동성애 홍보방송처럼 대대적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책무도 망각한 처절한 행위로 크게 지탄받아야 한다.

이제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을 믿지 않게 되었고, 아예 방송을 외면하는 국민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 책임은 전적으로 방송의 몫이다. 정권 따라, 시류(時流) 따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방송하는 것을, 국민들 가운데 누가 믿고, 공영방송으로 인정하려 하겠는가?

우리나라 방송은 특정 집단이나, 소수자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바르고,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그런 기준에서 벗어나면, 이는 공영방송이 아니라, 사설(私設) 방송이거나 자멸하는 방송이 될 것이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연요한 목사의 ‘아침을 여는 기도’

사람의 하나님!

주님의 고통에 참여할 고귀한 권세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빌1:29) 사도 바울은 극심한 환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계심을 알았기에 어떤 시련을 당해도 절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영안이 소생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 회개의 영, 그리고 복음 전파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

하고 이웃에게 잘못을 돌이키며 화평케 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저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옵소서. 제가 그리스도를 위해 싸우겠습니다.

돈이 많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과 다른 소중한 가치관을 갖게 하옵소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로마 감옥에서 처형당할 형편에 처해있는 바울이 기뻐하라고 거듭거듭 권고합니다. 마지막 힌든 순간에도 주님 만날 것을 바라보았습

니다. 감옥의 문이 찬양과 기도로 열릴 줄 믿습니다. 교회의 확장은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위대로운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저의 생존을 위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시편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첫 순교자 스데반같이 박해 속에서도 놀라운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순교의 복을 보존하게 하옵소서. 고초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놀라움과 기쁨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바라볼

때 저의 모습도 예수님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 때야말로 갈보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따라가 순간마다 주님의 아픔에 참여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본향 천국 바라보며 새 노래 함께 부르세.” 하나님께서 저와 가까이 하시옵소서. 천사의 얼굴을 가지고 성령님과 평안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저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연요한 목사는 송실대, 송의여대 교목실장과 한국기독교대학교목회장을 역임하였다. 최근 저서로 「사순절의 영성」, 「부활 성령강림」 등이 있다.

당사주 형제 믿는 철학동화-철학하는 마이

코트는 없어졌지만, 검소한 삶의 자세는 전통으로 남았어!

글: 김아람소프스 | 그림: 배미란 | 대림출판 | 평정 이윤재 | 16쪽 | 15,000원

스콜 라이브러리 저널 선정 '2014 최고의 어린이책'

이국땅에서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장만한 코트 한 벌.
할아버지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코트를 입었어요.
날고 헤쳐서 더 이상 못 입을 지경이 된 코트를 버렸나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급해, 남은 코트로 재킷을 만들고,
또 재킷으로 조끼를 만들고, 그 조끼로 넥타이를 만들었대요.
할아버지는 그때마다 이렇게 외쳤어요,
“아무렴, 여전히 쓸 만해.”

하찮고, 오래되고, 쓸모없던 것도 소중히 다루고, 오래 간직하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변신대요.
진정한 영혼은 내가 만들고 가꾸는 거예요. — 한때 디자이너·보자기 마스터로 일하셨

한국 서울 및 국내외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도서 문의: 02-750-7500 **마이북**